

사회



“블랙박스를 찾아라”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직원 10여명이 24일 영암군 삼호면 망산리 영암호에서 ‘까모프’(KA-32T) 헬기의 추락 원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행 20년 베테랑·날씨도 좋았는데...

■ ‘산림청 헬기 영암호 추락’ 풀리지 않는 의문들

기상 악화·운항 미숙·기체 결함 가능성 적어 바지선 접근 못해 블랙박스 수거작업 어려움

지난 23일 영암에서 발생한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용 ‘까모프’(KA-32T) 헬기 추락사고는 비행경력 20년 이상의 정·부조종사 3명이 최적의 기상조건에서 정조종사 양성훈련을 하던 중 일어났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와 산림청은 기계적 결함·정비 불량·오작동·기상 악화·운항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은 낮다. 사고 당일 사고 현장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또 사고 현장은 호수로 기류가 산·언덕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중의 파동인 산악파(山岳波)와도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운항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도 작다는 시각이다. 고(故) 박용규(52) 교관을 비롯한 이종배(46·비행시간 4천317시간)·이용상(44· 3천348시간) 부조종사 모두 비행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기계적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도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고 기종의 헬기는 꼬리 날개가 없어 이·착륙은 물론 비상시 조종사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비행 안전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994년 국내에 첫 도입한 이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항공전문가들은 시야 착각과 회전 날개 비행체인 사고 헬기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A-32T 헬기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위성 조난 발신기(ELT)가 장착돼 있으나 다른 여객기·전투기와 달리 수면에서는 작동되지 않은 한계를 지녔다.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

고현장에서 추락 헬기를 인양한 뒤 비행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양작업도 만만찮다.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이날 사고 현장인 영암군 삼호면 망산리 영암호에서 헬기 인양작업에 착수했으나 해수면의 수위가 영암호보다 1.5m 가량 높아 바지선 접근이 힘들어 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해수면 수위가 내수면보다 높을 수 문을 열 경우 ‘역류’가 발생해 헬기는 물론 바지선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양작업을 맡은 크레인업체는 길이 15m, 폭 9m 규모의 바지선 1척과 길이 12m, 폭 8m 규모의 바지선 1척 등 모두 2척의 바지선을 대물항에서 육지로 옮겨 이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동체 인양은 25일 오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유족·산림청 협상 난항 장례 차질

국립묘지 안장 이견 ... 보상금 1인당 3억여원 될 듯

지난 23일 영암에서 발생한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소속 산불진화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장지(葬地) 등 장례절차를 둘러싼 유가족과 산림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림청과 유족들은 24일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동구 학동 금호 장례식

장에서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장례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인정 ▲정확한 사고 원인 규

명 등 세 가지 부분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의견차가 커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묘지(군 경력 20년 이상)에 안장될 고(故) 이종배 조종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장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족 측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 인정 등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관계 기관 측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사고로 숨진 박용규·이종배·이용상 조종사를 순직 처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25일 산림청장(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유족들에겐 사망자 1인당 3억원 가량의 보험금과 연금법 규정에 따른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리조트 개발 미끼 410억 사기 대출

시행사 간부 등 4명 구속

리조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허위 투자 관련 서류를 꾸며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임직원들과 전직 군인공제회 고위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철)는 24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4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노모(62)씨 등 H업체 간부 3명과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5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경남 하동군에 추진중인 리조트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1천300여만원의 PF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14억~13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H업체로부터 대출사태금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로 S저축은행 과장 서모(41)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에 사채를 빌려준 뒤 최고 연 7천300%의 ‘살인 이자’를 받아 행간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지폭력배 조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수해경 28년 된 경비함 ‘올해의 함정’



중형 부문 평가 전국 1위

간조된 지 28년이나 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75함(사진·250t급)이 중형 경비함 부문 해경 평가에서 ‘올해의 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전국 14개 해경 210여척의 함정과 4천여명의 승조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09 우수함정 평가’ 중형 경비함 부문에서 275함이 종합 1위를 차지, 올해의 우수함정에 선정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275함은 상·하반기 2차례의 해상종합훈련과 해상경비, 위반선박 검거, 해양사고 구조 등 해상치안 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82년 건조된 노후 함정인면서도 30여명의 승조원들이 팀워크와 끊임없는 교육훈련,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에 힘을 합쳐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275함 승조원들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특별승진 기회도 제공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주 원정 성매매 알선 구속

목포경찰은 24일 여성 2명을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박모(35)씨와 김모(여·38)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빚 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솔집 종업원인 이모(여·25)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호주 멜버른의 한 성매매업소에 취업시킨 뒤 소개비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부친 100세 기념 쌀 100가마 기부

○~아버지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웃에 쌀 100가마(한 가마당 20kg)를 기부한 60대 아들이 있어 화제.
○~24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 임동 상가변영회장인 임영길(63)씨는 지난 23일 부친 임우남씨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쌀 100가마를 동(洞) 주민센터에 기탁했다는 것.
○~임씨는 “애초 가족끼리 아버지 생일 잔치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취소했다”며 “비록 지금은 차매를 앓고 있지만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번 주 중으로 기탁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계획.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하남공단 中 小 운영 30대

경영난에 자살

23일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K아파트에서 금형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오모(39)씨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부인(3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3억 원으로 하남공단에 업체를 세운 남편이 최근 경영난에 따른 부채 누적으로 힘들어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영난을 겪던 오씨가 신분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내산 100% 블루베리' (100% Domestic Blueberries). The ad features images of blueberrie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such as being rich in antioxidants and vitamin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distributor: T. 062-322-7478 and 010-3034-7478.

Advertisement for 'IRALC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IRALC Hybrid Exterior Waterproofing Remodeling). The ad features a man in a suit and text describing the services offered, including waterproofing and remodeling.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511-0444, 010-6603-0405.